‘7년 표류’ 윤상원 기념관 사업, 주민들이 길 터줬다

〈5·18 시민군 대변인〉

출입로 확보 안돼 답보 상태서 주민들이 마을회관·경로당 기부
광산구, 생가서 100m 거리 신룡동 천동마을에 착공 8월 개관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고향 마을에 ‘윤상원 민주커뮤니티센터(윤상원 기념관)’를 세우는 공사가 7년여 표류 끝에 마을 주민들의 합심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계획됐지만, 주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건립 부지에 출입로를 만들지 못하는 등 문제로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될 위기까지 처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이 기념관 대체 부지로 써 달라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기부해 착공까지 이뤄낸 것이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 12월 광주시 광산구 신룡동 천동마을에서 기념관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천동마을 입구에 있는 대지면적 783㎡(236여평) 공간에 건축 연면적 591㎡ 1개 동 2층짜리 건물을 세우는 공사로, 오는 8월 완공 및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 내 윤상원 생가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들어서며, 이 곳에서는 5·18 선양교육과 현장 음악회, 기획·상설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시비 3억원, 구비 13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 등 총 22억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은 건립비에 21억원, 전시관 조성에 9300만원, 운영비 1300만원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당초 기념관은 지난 2016년부터 설립 계획이 세워졌으나, 출입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공사가 지지부진 늦어졌다.

광산구청과 윤상원기념사업회는 지난 2016년 5·18민중항쟁 50주년을 대비한 ‘2030 윤상원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념관 건립 사업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에는 2019년까지 기념관을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윤 열사의 유가족이 마을 내 농지 817㎡를 흔쾌히 기부하면서 이곳에 지상 2층 연면적 600㎡ 규모로 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기념관 부지 진입로를 소유한 주민이 1년여 동안 완강하게 기부 반대 의견을 내자, 착공은 커녕 실시설계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광산구는 전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21년 천동마을 주민들은 임곡천동경로당을 광산구에 기부채납하고 대체 부지로 활용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종호 천동마을 통장에 따르면 이 마을회관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설립됐으며 천동마을 새마을회 소유로 돼 있었다. 부지를 광산구에 매각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무상기부’로 뜻을 모았다.

대신 광산구는 기념관 2층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마련해 마을 사랑채 역할도 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최초 센터 건립 부지로 정했던 곳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 통장은 “천동마을 주민들은 모두 윤상원 열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지내 왔던 이웃들인데, 이들에게 윤 열사는 마을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며 “많은 이들이 기념관을 찾아와 윤 열사를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전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알맹이 없는’ 5·18 계엄군 증언 행사

5·18부상자회·특전사동지회 발포명령자·암매장지 질문에 “모른다” “들은적 없다” 반복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두 번째로 계엄군의 양심고백·증언을 듣는 행사를 열었으나, 증언자가 발포명령자나 암매장지 등 진상규명 주요 질문은 물론 당시 전후 상황까지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해 알맹이가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제2회 ‘오늘의 증언이 5·18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1980년 5월 당시 3공수여단 작전보좌관으로 상황실 근무를 했던 최명용(74) 예비역 소령이 증언대에 올라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에서 이뤄진 최초 발포 당시 상황, 전남대와 광주교도소에서 이뤄진 암매장 정황 등을 증언했다.

하지만 최 소령은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증언회에서 “모르겠다”는 말을 13차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최 소령은 최세창 3공수여단장을 비롯한 상부로부터 발포·사살 명령이 내려왔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발포 명령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최세창 여단장이 ‘권총 3발’을 쏘는 것으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권총 3발을 쐈다 해서 ‘사격명령’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암매장 정황에 대한 설명도 불분명했다. 최 소령은 “최세창 여단장의 명령을 받고 전남대 대학건물 뒤편과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 시신을 가매장했다”면서도 “전남대와 광주교도소 모두 가매장했던 곳에 건물을 지어버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매장한 시신이 몇 구인지 묻는 질문에도 “저는 17구 정도로 기억하는데, 12구라고도 들은 것 같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투입 날짜와 전남대에서 퇴각한 날짜, 가매장을 한 날짜, 철수한 날짜 등에 대해서도 “정신없이 일하느라 날짜 감각이 없었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증언회가 지난 3월 13일 열린 제1회 증언회로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회 증언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차례 증언자로 참여했던 김귀삼(68) 예비역 중사를 초청하고 과거 증언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맹탕’ 지적을 받았다. 최 소령 또한 진상조사위에서 이미 12차례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24일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최명용(가운데) 특전사 예비역 소령이 20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증언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광주서 장애인 단체 집회…교통관리 실시

시내버스 21개 노선 우회 조정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날 하루 뒤인 21일 광주지하철과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돼 경찰이 교통관리에 나선다. 일부 버스노선은 우회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예정에 따라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애인단체 집회 참가자 150여명은 휠체어 30~50대를 타고 오후 1시까지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역에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역까지 10개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

이후 이들은 오후 2시 30분 부터 5시 4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광주시청 앞 까지(약 3㎞) 인도 및 2개 차로로 행진(김대중컨벤션센터역→보훈회관 사거리→광주서부경찰서 사거리→BYC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시청)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코스에 지하철 공사 구간이 포함돼 정체가 예상돼 시내버스 21개 노선(상무중앙로 6개, 내방로 15개)은 우회 조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간대에 교통량 흐름에 따라 부분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3년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주시에 중장기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309명 공채

광주시교육청은 20일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조리사 등 7개 직종에서 85명,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조리원과 미화원 직종에서 224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https://eduworker.gen.go.kr)’에서 5월 1~8일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에 실시한다. 1차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6월 22일에 예정돼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